

〈 ‘쌀값정상화법’ 국회 재의 기결 촉구 기자회견문〉

- 윤석열 대통령의 ‘쌀값정상화법’ 거부 근거 총체적 부실로 밝혀졌다! -
- 국민의힘은 ‘쌀값정상화법’ 국회 재의에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상임위를 개최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민단체 여론수렴 결과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현안질의에 대한 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의 국회 재의 표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현안질의 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 즉,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① 첫째, 단위생산량을 과다 추정하여 생산량을 부풀렸다.

연구원은 단위생산량(단수)을 산출할 때 법 미개정시 전망때는 300평당 521kg으로 고정하였지만 법 개정시에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553kg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2010년 이후 평년 단수는 512kg에 불과하였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41kg이나 부풀린 것이다. 연구원은 쌀 생산량 발표 시 5년 평균인 평년단수를 사용하는데, 지난 5년 평년단수 518kg를 적용 시 쌀 생산량은 360만 5천 톤으로 연구원 전망(385만 5천톤)은 이보다 25만 5천톤을 과잉 추산했다. <표1 참고>

② 둘째, ‘쌀값 정상화법’에 명시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쌀 생산 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하여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시된 2027년 밀 자급률(8.0%), 콩 자급률(43.5%)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밀·콩 재배면적은 약 4만 8,817ha에 달하고 이를 쌀재배면적 전환으로 달성할 경우 연구원의 예측보다 약 25만 2,873톤이 적게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참고>

또한 연구원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4%로 과소 추정했다. 최근 20년 재배면적 감소율 1.93%와 최근 10년간 감소율 1.52%에 비해 과소 추정하여 쌀 생산을 부풀린 것이다.

③ 셋째, 결과적으로 시장격리 물량과 비용을 과잉 추정하여 여론을 호도하였다.

연구원은 2022~2030년 초과공급량은 연평균 43만톤, 시장격리비용은 연평균 9,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어제 발표된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제시되었듯이 과거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초과공급량은 평균 2만7천톤 ~ 20만톤에 불과하였고, 시장격리비용도 598억원 ~ 4,44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넷째,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아니기에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불충분함이 드러났다.

농경연의 연구는 지난해 12월 발표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올 2월27일 수정되었다. 초과생산량 기준과 가격 기준 모두 완화되었고,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면제 조항까지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물론,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3~5% 초과생산만 되면 가격 급락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3 참고>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정부가 주장했던 농민단체의 여론 수렴결과 역시 엉터리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45개 농업인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문사 등 비농업인단체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단체도 있었고, 현장 농업인 회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명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안 질의를 통해 드러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위 연구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 또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힘 역시 찬성 표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국민의힘이 재의표결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병은, 안호영, 어기규, 위성곤, 윤미향, 윤계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표1> 쌀수급 전망 (단위: 천ha, 천톤, kg/10a)

| 연 산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① 현 조건시 쌀 수급 전망 (베이스라인 전망) | | | | | | | | | |
| 벼 재배면적 | 727 | 709 | 699 | 690 | 682 | 675 | 668 | 661 | 655 |
| 쌀 생산량 | 3,857 | 3,696 | 3,642 | 3,598 | 3,555 | 3,518 | 3,482 | 3,446 | 3,415 |
| 단수 | 531 | 521 | 521 | 521 | 521 | 521 | 521 | 521 | 521 |
| ② 양곡관리법 개정시 수급 전망 | | | | | | | | | |
| 벼 재배면적 | 727 | 690 | 702 | 705 | 705 | 705 | 703 | 700 | 697 |
| 쌀 생산량 | 3,857 | 3,677 | 3,759 | 3,794 | 3,818 | 3,835 | 3,844 | 3,849 | 3,855 |
| 단수 | 531 | 533 | 535 | 538 | 542 | 544 | 547 | 550 | 553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22)

<표2> 밀·콩 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타작물 전환면적·지원비용, 쌀생산 감소량

| 구분 | | 2022년 | 2027년 (尹 정부 발표) | 2030년 (2020년 발표) |
|----|------------------------------------|-----------|--------------------|---------------------|
| 콩 | 자급률(%) | 23.7% | 43.5% | 45.0% |
| | 재배면적(ha) | 63,956 | 79,032 | 81,758 |
| | 생산량(톤) | 129,925 | 147,000 | 152,069(E) |
| | 타작물 전환면적(ha) | - | 15,076 | 17,802 |
| | 타작물 지원비용(억원) | - | 452 | 534 |
| | 콩 재배 전환 시 쌀 생산 감소량(톤) | - | 78,095 | 92,212 |
| 밀 | 자급률(%) | - | 8.0% | 10.0% |
| | 재배면적(ha) | 8,259 | 42,000 | 60,000 |
| | 생산량(톤) | 33,036(E) | 168,000 | 240,000 |
| | 타작물 전환면적(ha) | - | 33,741 | 51,741 |
| | 타작물 지원비용(억원) | - | 1,518 | 2,328 |
| | 밀 재배 전환 시 쌀 생산 감소량(톤) | - | 174,788 | 268,018 |
| 합계 | 타작물 전환면적(ha) | - | 48,817 | 69,543 |
| | 타작물 지원비용(억원) | - | 1,971 | 2,862 |
| | 콩·밀 재배 전환 시 쌀 생산 감소량(톤) | - | 252,873 | 360,230 |

※ 타작물 전환면적은 2022년 밀·콩의 각각 재배면적에서 각 연도 목표 재배면적을 뺀 수치임

※ 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부 목표인 400kg/10a를 적용, 콩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수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년단수인 183kg/10a를 적용함

※ 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8년~2022년 단수 중 최고값/최저값을 제외한 평년단수 518kg/10a 적용

※ 타작물 전환 지원비용은, 콩은 콩 재배 순이익이 쌀 재배보다 1ha당 200~300만 원이 크도록 300만 원/ha, 밀은 밀 재배 순이익이 쌀 재배보다 1ha당 50~100만 원이 크도록 450만 원/ha를 책정함

<표3> 양곡관리법 원안과 수정안 비교

| 구분 | 개정안(22.10.19) | 수정안(23.2.27) : 본회의 통과 |
|----------|--|--|
| 매입 요건 | ①초과생산량 3%이상으로 가격하락 우려시 ② 쌀값이 5%이상 하락시 | ① 3% → 3~5%중에서 정부가 선택 ② 5% → 5~8%중에서 정부가 선택 |
| 예외 조항 | - | 벼재배면적 증가시 시장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